

황소의 거친 숨과 단단한 기상을 품은 화가 이중섭!

그의 예술 세계만큼 창작오페라 "나는 이중섭이다"의 도전 또한 힘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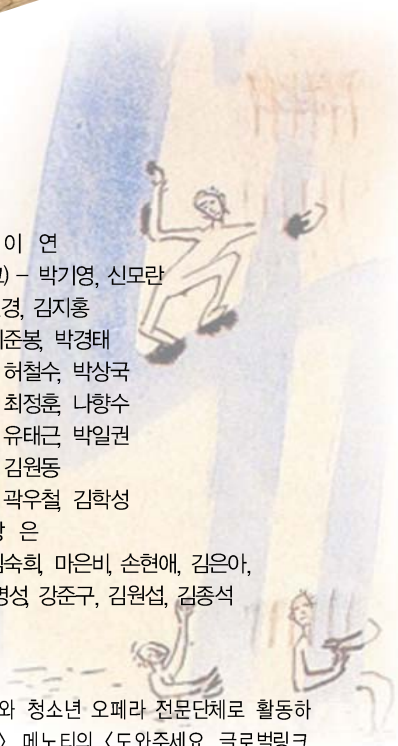


■ 주요 스태프

- ▶ 원작 - 김용범 (소설 나는 이중섭이다)
- ▶ 작곡 - 이근형
- ▶ 대본작가 - 이지은
- ▶ 지휘 - 이은순
- ▶ 연출 - 김문식
- ▶ 무대, 의상, 소품디자인 - 임일진
- ▶ 영상디자인 - 윤세준
- ▶ 조명디자인 - 김민재
- ▶ 분장 - 박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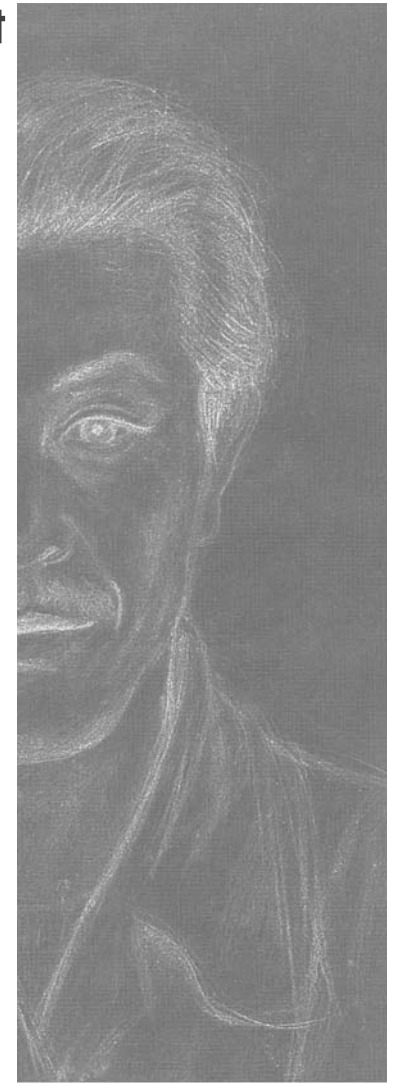
■ 등장인물

- ▶ 이중섭 - 김재섭
- ▶ 모문식 - 장신권, 이 연
- ▶ 이중섭아내(마사코) - 박기영, 신모란
- ▶ 구상(시인) - 김현경, 김지훈
- ▶ 김광림, 노인 - 이준봉, 박경태
- ▶ 고감정, 박평론 - 허철수, 박상국
- ▶ 안진명, 아판단 - 최정훈, 나향수
- ▶ 남기자, 집배원 - 유태근, 박일권
- ▶ 한질서, 김순경 - 김원동
- ▶ 이교화, 박순경 - 곽우철, 김학성
- ▶ 장모 - 김란희, 장 은
- ▶ 합창 - 임영신, 김수희, 마은비, 손현애, 김은아,
- ▶ 아크로바틱 - 김명성, 강준구, 김원섭, 김종석



창작오페라

나는 이중섭이다



Kco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2003년, 예술감독 백의현 연출의 <노아의 방주>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오페라 전문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브리튼의 <굴독청소부 쌤>, <한여름밤의 꿈>, <노아의 방주>, 메노티의 <도와주세요, 글로벌링크스>, 베르골레지의 <음악 선생님>(영리한 시골처녀), 모차르트의 <카이로의 거위>, 도니젯티 <비바라 맘마>,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의 초연과 특히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청소년오페라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벤자민 브리튼 청소년오페라축제>와 베르골레지 서거 200주년 기념 <베르골레지 단막오페라축제>, 일본 동경실내극장과의 협력공연으로 소극장오페라 전문단체로서의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 국립오페라단 창작팩토리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오페라단이 우수창작 오페라 발굴과 전략적(선택)과 집중 및 사후지원 지원을 통한 오페라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오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사업.

2012.5.18(금) 오후 8시 / 5.19(토) 오후 3시, 7시 / 5.20(일) 오후 3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예약문의 031.828.5841~2 www.umtf.or.kr / www.uac.or.kr

“나는 이중섭이다”

2011년 국립오페라단 창작팩토리사업 작품제작지원 부분 선정!!
제11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초연!!



창작오페라로
그려낸 화가 이중섭



“예술이 삶이고 사랑은 희망 희망으로 사는 시간, 그것이 인생”

한국 미술경매 최고가 화가 이중섭, 한국인이 사랑하는 최고의 화가!
이중섭을 말하는 화려한 수식어들 뒤에 숨어있던 그의 삶, 사랑, 예술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길 희망했던 예술가 이중섭! 창작오페라로 그려내다.



■ 작품 소개

오페라 “나는 이중섭이다”는 국립오페라단 창작팩토리사업 작품제작 지원 부분에 선정된 2012년 대표 창작오페라이다. “나비부인”(2006), “베르테르”(2009) 등 다수의 오페라 제작을 통해 풍부한 오페라 제작 시스템을 갖춘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소극장오페라 전문 단체인 코리아 체임버오페라단의 공동제작으로 탄생한 새로운 창작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

제11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창작오페라 “나는 이중섭이다”는 어렵고 비싸다는 오페라의 편견을 깨고 소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한 감동적인 무대로 관객을 찾아가는다. “나는 이중섭이다”는 탄탄한 작품 구성으로 창작팩토리 시나리오, 쇼케이스 단계에서 부터 이미 완성도를 인정받았으며 오랫동안 우수 작품 개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의정부예술의전당의 기획력을 만나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 작품 줄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인 ‘이중섭’의 전시회, 모든 이들이 이중섭의 그림세계에 격찬을 하며 전시회가 무르익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뛰어들어 전시된 모든 작품들은 위작이며, 모두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 주장한다. 전시회장은 이수라장이 되고 위작을 그린 모사화가 문식은 감옥에 수감되고 만다. 이중섭의 그림세계를 쫓다 결국 자신이 이중섭이라는 착란에 빠진 문식은 어느 날 감옥 속에서 이중섭이 살았던 과거의 시공 속으로 이끌려가게 되는데 ...

‘모사화가 모문식’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이중섭’의 삶과 예술!

조성(tonality)과 무조성(atonality)을 넘나드는 음악구성을 통해 이중섭의 내면적 자아표현을 위한 모사를 극대화!

창작 인큐베이터 창작오페라 “나는 이중섭이다”는 음악적 완성도는 물론 드라마적 완성도까지 더해 관객에게 사랑 받는 창작 오페라로 탄생!

■ 이중섭 [李仲燮, Lee Jung Seop, 1916. 4. 10~1956. 9. 6]

한국의 서양화가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시대의 이품과 굴곡 많은 생애의 울분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해냈다. 대담하고 거친 선묘를 특징으로 하면서도 해학과 천진무구한 소년의 정감이 작품 속에 녹아 있으며, 경쾌하고 유연한 필선의 은지화는 그 고유성을 인정받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되어 있다.



■ 주요작품

《서귀포의 환상》(1951년),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1953년), 《부부》(1953년경), 《황소》(1953~1954년경), 《길 떠나는 가족》(1954년), 《도원》(1954년), 《달과 까마귀》(1954년), 《흰 소》(1954년경)